

기온은 매년 오르는데 폭염 대책은 '제자리'



김양배 기자

광주 시민들 만나보니

어르신·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지장 더위에 그늘로 피신해도 소용 없어
지난 6월 1973년 이후 평균기온 최고
"중장기적 관점서 도시 구조 변화 필요"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지역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노인들과 아이들은 집 이외에는 갈 곳이 없고, 일선 현장 노동자들은 무더위 속 생명을 걸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들 모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힌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오후 찾은 광산구의 한 공원.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진 곳에 모인 노인들은 벤치에 기대 앉거나 팔각정에 앉아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그들이 쉼터에 있는 곳임에도 이미 노인들의 등에는 땀이 번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한 노인은 공원에 비치된 운동 기구에 다가서다 이내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최숙희(71)씨는 "요즘 날씨가 말도 안되게 덥다. 집에 있어도 더위니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 겸 나왔는데 소용이 없다"며 "운동이라도 해보려고 기구에 올랐다가 햇빛에 달궈진 탓에 뜨거워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모(83)씨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늘로 피신했는데 시원하지 않다"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뜨거운 공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찾은 놀이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늘이 없어 띄어별 아래 그대로 노출된 놀이터는 뜨거운 지열까지 겹쳐 한껏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기만 할 뿐 미끄럼틀에 오르지 않지는 않았다.

자녀와 함께 놀이터를 찾은 김세은(28)씨는 "아이가 보채서 안고 미끄럼틀을 탔다가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 깜짝 놀랐다"며 "아이 손바닥이 달았으면 화상을 입었을 것 같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산강변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이들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힘들어 했다.

건강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와 라이딩을 했지만 그늘 한점 없는 도로를 따라 달리기 여간 쉽지 않은 듯 심터에 앉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조모(50대)씨는 "집에서 얼음물을 챙겨왔지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다 녹아버렸다.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생각보다 더 덥다. 나온 것을 후회하는 중"이라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그늘도 없어 한여름, 특히 대낮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하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성광섭(63)씨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을 하지만 에어컨이 없는 근무 환경때문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씨라 견디기 버거운데 일터에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며 "일하는 중간에 샤워할 수도 없어서 집에서 작업복을 두개씩 챙겨서 나온다.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면 7월 중순과 8월에는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올해 여름 더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6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4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도 높아 1973년 이후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하순이 되지 않았음에도 폭염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일시적 대책 마련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중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매년 반복되는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폭염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 얼음물 공급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녹지가 풍부한 공원을 조성, 도시계획상 바람길을 형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도시 구조 환경을 변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지원시설은 단 한 곳뿐

광주에는 비주거시설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단 한 곳 운영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의 비주거시설 거주민을 위한 지원 시설로는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산하 '쪽빛상담소'가 유일하다. 쪽빛상담소는 동구에 개설돼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식사, 심리상담, 음악·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광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만큼, 자치구별 지원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쪽방 거주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쪽빛상담소를 확대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은 "예를 들어 북구 전남대학

교 후문 쪽은 사실상 '비주거형 원룸촌'이라고 볼 수 있다. 고시 준비생부터 일용직 근로자, 고립된 1인 가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계서는데, 공통점은 대부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북구가 광주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데도, 예산 부족과 지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종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은 "쪽방촌으로 많이 알려진 동구는 거주민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그외 지역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고시촌의 경우 젊은 층이 비교적 많아 시설에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꺼려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주거시설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상향 상담을 실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며 "광주 전역에 동구의 쪽빛상담소처럼 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

- 전남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종합돌봄센터"
- 갑작스런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긴급돌봄전화(☎1522-0365)"
- 농·산·어촌을 찾아 의료·복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물류센터"
-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 안전대책 통합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도서지역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 "섬·섬 프로젝트"
- 시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